남북관계 먹구름…불교교류 지속 추진

민추본 사업계획 발표

봉축행사 때 조불련 초청
한반도 평화문제 토론회
북한 어린이 영양 지원

평불협·당진시 공동
남북화합 줄다리기
임진각 개성 등서 진행

북한의 핵실험으로 남북불교 교류 사업에 먹구름이 끼였다. 그러나 불교계는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대화와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민추본, 이사장 자승스님)는 지난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2013년 1차 정기 이사회를 열고 올해 주요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남북관계가 어느정도 풀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 핵실험으로 당분간 경색 국면을 띨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계종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조선불교도련맹과의 직접적 접촉을 통해 교류 재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새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큰 틀에서 변화될 것은 없다"고 밝혀 남북불교교류사업의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민추본은 지난해에 이어 오는 5월 부처님오신날 행사에 맞춰 조선불교도련맹 대표단 초청을 추진한다. 평양불교회관 건립, 북한불교문화재 공동전수조사 사업을 장기적인 문화재 보존계획으로 수립했다.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와 공동으로 북한 어린이 영양을 지원하는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도 발표했다. 범국민 통일의식 확산을 위해 정부 승인 없이도 가능한 한반도 평화문제 토론회와교육사업에도 치중한다.

이날 이사회에서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측이 핵실험을 강행한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10여분간 브리핑을 했다. 고 교수는 실효성 없는 제재 강화보다는 핵개발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3~4달은 제재 국면에 들어가더라도 향상된 핵 능력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상반기 이전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며 "문화재전수조사와 회관건립 사업을 연계해 정부의 대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본부장 지홍스님은 "앞으로 남북불교교류를 위해 평양에 거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북측과의 실무회담에서 긍정적 이야기가 오고간 만큼 회관건립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이하 평불협)와 당진시는 남북화합 통일 줄다리기 행사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오는 4월11일부터 14일까지 기지시줄다리기민속축제를, 6월15일에는 '임진각 평화통일 기원 줄다리기 민속놀이'를 진행해 남북화해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 8월15일 개성공단에서 '남북화합 평화통일 줄다리기 민속놀이'를 함께 추진키로 했다.

평불협 회장 법타스님은 "남북관계개선에 상호불신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로 신뢰를 구축해 평화통일의 중요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동국대 재가이사후보 추천 유효하다"

종관위, 정관 개정·총동창회 참회 촉구

종립 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원경스님)가 지난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과회의실에서 87차 회의를 열고 종관위가 종회 동의를 거쳐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후보자를 추천한것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종관위는 이날 결의문을 발표하고, 동국대학교 허천택 이사 후임으로 추천한 김선근, 김영순 교수는 종립학교관리법 제7조 제4호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천된 후보이므로 기 추천된 후보자 2인이 유효함을 종립학교관리법 제13조에 의거해 조정결의한다고 천명했다.

종립학교관리법 13조 의견조정 조항에는 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학 및 중앙종부기관이 설립한 학교법인 이사회가 의견차이 또는 분규로 인하여 이사회의 기능 수행에 지장이 있을 때는 관리위원회의 조정 결의에 따라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와 함께 종관위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에 정관개정을 촉구했다. 종립학교관리법 7조 4항 '관리위원회는 이사와 감사 등 임원 후보(승가-재가)를 선정하여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 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중앙종부기관에서 설립한 교육기관에 복수 추천한다'에 의거해 학교 정관도 '이사와 감사는 조계종단의 2배수 이상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라는 것이다.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의 임원선임 관여와 정관개정반대 서명 독려 행위는 종단과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위신을 손상시킴과 동시에 총동창회의 월권행위이므로 이에 대하여 참회할 것을 요청하도록 결의했다. 또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법인사무처에 이번 사태의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어현경 기자

지난 14일 종단 장학증서를 받은 학인 스님들이 총무원장 자승스님(가운데) 교육부장 법인스님(왼쪽에서 세 번째)과 기념촬영을 위해 함께 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총무원장 스님과 2013 종단 장학승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14일 2013년 종단 장학승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서강대 박사과정 홍진스님, 일본불교대 박사과정 혜명스님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해외장학승으로 함께 선발된 진옥스님은 현재 인도 거주 중이라 이날 시상식에 불참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부하는 스님들을 위해 종단과 교육원이 장학기금을 마련해 미력하나마 도움을 주고 있다"며 "열심히 학업을 마친 뒤 종단에도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국내 장학승으로 뽑힌 홍진스님은 서강대 종교학과 박사과정으로 불교윤리와 생명을 전공하고 있다. 일본불교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혜명스님은 사지, 사찰을 연구하는 불고교고학 전공자다. 또 인도 델리대 박사과정인 진옥스님은반야사상을 연구 중이다.

한편, 장학승으로 선발된 스님에게는 해당 과정 수료시까지 등록금 및 연구비, 생활비 등이 지급된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새로운 대안은 '교구총림제'

'총림 운영' 1면에 이어

교구총림제는 새로운 대안이다. 선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 승가대학이나 율원, 염불원을 본사가 아닌 수말사에 둘 수 있도록 해 교구전체를 총림화하자는 것이다. 또 삼장원, 염불원법을 신설하고, 자비행을 실천하는 행원(보현행원에서 유래)을 통해 선원 외에 수행기관을 확대해서 총림의 여건에 맞게 수행기관 일부를 취사선택해 운영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와 총림구성요건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장 자격과 관련해서 쇄신위는 현재 총림법에 규정된 방장자격 중 20안거 이상을 성만하도록 돼 있는 구절을 삭제하자고 안을 냈다. '선, 교, 율을 겸비한 승납 40년 이상의 본분종사'로 규정한 종헌과 일치시키기 위해서다. 현행 총림법처럼 방장의 자격에 20안거 이상 성만을 포함시키면, 종헌에서 규정한 것처럼 선교율을 겸비한 본분종사가 방장이 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총림 운영에 있어 방장 스님 1인에게 권한이 집중된 것을 극복하기 위해 방장의 주지선출권도 제한했다. 쇄신위에서는 임회가 주지후보를 복수추천한 뒤 방장이 1명을 추천해 총무원장이 임명하거나, 방장이 추천하고 임회가 동의하는 두 가지 방안으로 개정안을 제출했다. 일부에서는 임회가 후보자를 복수추천하면 방장이 1회에 한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렇게 되면 임회 총림운영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주지후보자 추천과 임회의 3분의2가 의결할 경우 주지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 대표적인 예다. 또 현행 25~31인에서 25~50인으로 확대해 방장 수좌 유나 선원장 등 당연직 외에 비구니, 재가자, 종회의원, 전 주지, 원로의원 등으로 넓혀 사부대중 공의를 모으는 형태로 운영되는 방안도 제시돼 있다.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특별위원장 법안스님은 "이번 공청회는 시대에 맞는 총림제도를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쇄신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부터 매년 '자비기금' 보시

원로의원 종하스님 '아름다운동행'

조계종 원로의원 스님이 아름다운동행 출범 이후 꾸준하게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주인공은 서울 남현동 관음사에 주석하고 있는 종하스님〈사진〉. 원로의원 종하스님이 지난 14일 종단의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에 자비나눔 기금 1500만원을 전달한 것이다. 이번 기금 전달은 계사년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종하스님과 아름다운동행의 인연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됐다. 아름다운동행이 출범한 이후 200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펼쳤던 자비나눔 사업의 첫 번째 기부자였다. 당시 스님은 불교계 내부에 기부 문화가 널리 확산되고 자비나눔 사업에 종도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후에도 2010년과 2011년에도 각각 지진 피해로 고통 받는 아이티와 일본에 구호기금을 보시하는 등 지금까지 총 4500여만원을 기부했다. 스님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들을 위한 자비실천이야말로 오늘날 불교가 해야 할 당연한 역할이며 기금 전달을 계기로 부처님의 자비가 널리 행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엄태규 기자

우리 몸의 치유본능을 찾는다

진흥원 화요열린강좌

의학과 인문학이 만나는 대중강좌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은 2월과 3월 연이어 서울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우리 몸이 지닌 치유본능을 찾다'를 주제로 화요 열린 강좌 '저자와 함께하는 책, 그 너머 이야기'를 진행한다. 먼저 19일 〈동의보감, 몸과 우주 그리고 삶의 비전을 찾아서〉를 펴낸 고전평론가 고미숙 씨를 초청해 '〈동의보감〉에서 내 안의 치유본능을 찾다'를 주제로 몸과 삶과 생각이 하나 되는 의학과 인문학의 만남을 시도했다.

이와 더불어 오는 3월19일 오후7시 〈의사는 수술받지 않는다〉의 저자 정형외과 전문의 김현정 씨를 초청해 강좌를 연다. 최초의 여성 정형외과 전문의이고, 여성으로서는 국내 1호로 정형외과학 대학교수를 역임한 김현정 씨는 이 자리에서 마음에 귀 기울이는 현명하고 균형 잡힌 의료소비에 대한 담론을 펼칠 예정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매월 1회 실시하는 화요 열린 강좌는 책을 통해 삶을 읽는 기획으로 시대의 거울이 되는 책, 마땅히 가야할 길을 보여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실현하는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바로잡습니다

본보 2888호(2013년 2월13일자) 8면 '법회중계' 현각스님편에서 "집주인 이규보 주막으로" 부분은 "집주인 이규보에게 묵고자 청했으나, 조금 더 가면 주막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절당하자, 주막으로"의 오식이며, 사진설명에서 '금강선원장 혜거스님' '1월28일'을 각각 '동국대 명예교수 현각스님' '1월29일'로 바로잡습니다. 기사에 나오는 인도어 원음 해설 등의 상세하고 정확한 표기는 인터넷홈페이지(www.ibulgyo.com) 기사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종무행정학교 제1기 기본소양과정 개설

본 종단에서는 종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 및 업무역량을 갖춘 예비종무원을 양성하고,
사찰 및 산하기관 신입 종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좌를 개설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일정 불기2557(2013)년 3월 6일(수)~9일(토) 3박4일

장소 전통불교문화원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604 ☎ 041-841-5050)

교육내용
- 종무원, 일과 수행〈법문〉
- 열정적인 종무원!
- 종무원의 자세
- 불교! 쉽고 명쾌한 이해
- 종단의 이해
- 사찰문화의 이해
- 사찰 종무 개론
- 사찰 운영과 기획 실무
- 사찰의 문서 작성 및 관리실무

교육대상자 총40명 내외
- 경력1년 이내의 본말사 재가종무원 및 산하기관 종사자 중 선착순 30명 내외
- 부처님법을 받들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종무원에 관심있으신 불자님 중 10명 내외

교육특전
- 중앙종무기관 종무원 채용시 본 과정을 이수한 예비종무원에게 가산점 부여
- 예비종무원이 희망할 경우 사찰 종무원 채용시 추천

접수기간 불기2557(2013)년 2월 12일(화) ~ 2월 28일(목)

접수방법 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수강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팩스(02-720-3302) 및 이메일(smj@buddhism.or.kr)로 신청

수강료
- 10만원(이수시 50,000원 환급)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23501-04-144692 대한불교조계종

접수 및 문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 담당 성만제
☏ 02-2011-1723 / 팩스 02-720-3302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